

# 에이스 윤석민 선발 복귀 위기 빠진 KIA에 '돌파球'



### 타이거즈 여름 대비력 위해 전력 재정비 ... 안치홍 2군서 타격 다듬어

KIA 타이거즈가 여름반격을 위해 전력을 빼고 더했다.

KIA가 연패의 악몽을 털고 1위 탈환을 노리기 위해 전력에 변화를 줬다. 계속된 타격 부진으로 고민하던 안치홍을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불펜에서 대기하고 있던 에이스 윤석민을 선발로 전환시켰다. 윤석민은 16일 SK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선발 등판에 나선 예정이다.

2루를 굳게 지키고 있던 안치홍의 엔트리 제외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결정됐다. 혹독한 수비 훈련을 통해 칼을 갈았던 안치홍은 올 시즌 수비에서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 타격에서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31경기에 나와 0.174의 타율로 9타점 15득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출루율도 0.276에 머물면서 기동력(도루 2개)을 제대로 발휘할 틈도 없었다.

시즌을 앞두고 타격폼을 바꾸며 잡타에 공을 들였지만 타격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마저도 무위로 돌아갔다. 중도에 다시 폼을 수정했지만 감을 잡는 데 실패하면서 고민 끝에 직접 이순철 수석코치에게 2군행 의사를 밝혔다. 조급함과 부담감을 털어내고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로 돌아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타격부진으로 2군행을 자진한 안치홍이 타격연습을 하고 있다.

2009년 프로 데뷔 이후 줄곧 1군에서 뛰면서 2루 자리를 지켜왔던 안치홍이지만 선동열 감독도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이를 수용했다.

안치홍은 수비수로서의 역할은 물론 선 감독이 구상하는 공격과 기동력 야구의 핵심. KIA의 가을야구를 위해서는 안치홍의 방망이와 발은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선 감독은 "본인이 직접 2군에 가겠다고 요청을 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훈련을 많이 해서 좋은 모습으로 오겠다고 했다"며 "팀 전력이 특정 선수에게 편중이 되면 안 된다. 어느 선수가 빠진다고 해도 꾸러갈 수 있는 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치홍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했지만 에이스 윤석민은 진격을 위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선 감독은 14일 "윤석민은 모레 선발로 나오게 된다"며 윤석민의 선발 복귀를 밝혔다.

지난 4일 넥센과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등판에 나선 윤석민은 12일 삼성전에서 두 번째 실전 피칭을 했다. 윤석민은 두 경기에서 6.2이닝을 소화하며 5피안타(1피홈런) 2실점으로 2.70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볼넷은 하나를 내줬지만 탈삼진은 7개를 뽑아내면서 불펜에서의 점검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예상보다는 늦은 복귀지만 윤석민이 선발 자리에 들어서면서 좌완 임준섭과 신일 호랑이 송은범을 활용한 마운드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 ① 덕아웃 말말말

▲팬찾아? = 헤어스타일을 바꾼 소사,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얘기에 한국말로.

▲메이저리거 갈네 = 소사의 헤어스타일을 본 김용달 타격 코치.

▲연습 많이 하고 왔나? = 선동열 감독이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 올라온 내야수 윤찬주를 보고.

▲백업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 2루수로 누가 나오느냐는 질문을 받은 선동열 감독, KIA는 안치홍이 타격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가면서 14일 박기남을 2루수로 선발 출전시켰다.

## 글러브 끼고 외야로 가던 나지완 "수비요정 나갑니다"

▲오늘 이겼어요. 상현이 형이 풀어준다고 했어요 = 김상현과 인사를 하고 온 나지완, 김상현이 저주를 풀어준다고 했다면서, 트레이드 이후 KIA가 연패에 빠지면서 '김상현의 저주'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러 헛스윙하고 있어요 = 이준호, 피칭 머신 앞에서 헛스윙하는 타자들을 보고, KIA는 14일 선발로 나온 SK 투수 레이

에스와의 승부에 대비해 강속구에 맞춰 타 이닝을 잡는 연습을 했다.

▲패전투수한테 왜? = 조규제 투수 코치, 취재진에 둘러싸인 송은범을 보고, 송은범은 지난 12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4-1로 앞선 8회1사에 등판해 4실점을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4일 오후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 열리기 전 SK로 이적한 김상현과 진해수가 KIA 선동열 감독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14일 오후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SK에서 KIA로 이적한 송은범이 SK 이만수 감독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 “토끼 용궁에 다녀왔다”

### 광주 FC, 종료 직전 행운의 골 ... 안양과 2-2 무승부



“토끼 용궁에 다녀왔다.”

광주 여범규 감독이 지난 13일 안양과의 K리그 홈경기 8라운드 홈경기 가 끝난 뒤 내뱉은 첫마디다. 여 감독의 말처럼 광주 선수들은 경기 종료 10여 초를 앞두고야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경기 결과는 2-2 무승부였다. 하지만 경기 끝난 후 양팀 선수들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승자가 된 표정의 광주 선수들과 달리 안양 선수들은 축 처진 어깨로 라커룸으로 향했다. 1-2로 뒤지던 후반 추가 시간이 운명의 시간이 됐다. 광주의 마지막 공격, 크로스로 율린 공이 안양 수비수 허박지를 맞고 골대도 향했고, 골키퍼에 막히는 것 같은 공이 손에 맞고 골라인을 넘으면서 자책골이 된 것이다.

전반전에만 두 골을 내주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던 광주에는 기적 같은 무승부였다. 초반부터 공격에 집중했던 광주는 전반 13분과 전반 37분 허무하게 두

골을 내렸다. 후반 20분 유종현이 큰 키를 활용해 헤딩골을 넣으며 추격에 나섰지만 이어진 슈팅이 모두 아쉽게 골대를 비켜가면서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였다.

이날 안양은 팀의 세 번째 골키퍼 백성우가 나왔다. 주전 골키퍼 이진철이 앞선 광주와의 경기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해 재활중이고, 정민교마저 수원과의 컵대회에서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백성우가 골문을 지켰지만 황당한 자책골을 기록한 것이다.

상대의 실수로 승리 같은 무승부가 나오면서 광주의 무패행진도 이어졌다. 부천과의 K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후반기 45분 나온 루시오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던 광주는 수원과의 FA컵에서는 첫 번째 골이 손에 맞고 골라인을 넘으면서 자책골이 된 것이다.

행운의 무승부까지 더해지면서 광주는 5월 대반격에 속도가 붙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빅딜 후 첫 만남...“고맙습니다” “우린 아메리칸 스타일로”

### 덕아웃 웃음 보따리

빅딜 이후 첫 만남은 유쾌했다.

KIA와 SK가 빅딜 이후 1주일 만에 무등경기장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송은범·신승현과 김상현·진해수의 대형 트레이드로 시선을 끌었던 만큼 이들의 친정팀 상봉은 덕아웃 관심사였다.

먼저 1루에서 재회가 이뤄졌다. SK 유니폼을 입은 김상현과 진해수가 나란히 1루 덕

아웃으로 와 선동열 감독에게 인사를 했다. SK 이만수 감독까지 1루 나들이에 동행해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KIA 덕아웃에는 웃음이 터졌다.

이어 훈련을 끝낸 KIA 송은범과 신승현이 3루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선 감독이 웃음 폭탄을 날렸다. 선 감독은 친정팀 방문에 나선 두 선수에게 “나는 이미 인사를 했으니가 돌아 가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라”고 말해 덕아웃을 웃

음 바다로 만들었다.

3루 덕아웃으로 인사를 하고 돌아온 송은범은 구수한 입담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왔느냐?”라는 선 감독의 농담에 “아! 그 말을 안 하고 왔습니다. 대신 아메리칸 스타일로 허그를 하고 왔습니다”고 대답을 하며 새로운 KIA 분위기 메이커로의 진가를 발휘했다.

새 팀에 빠르게 적응한 송은범은 ‘단순함’

으로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12일 삼성과의 경기 등판해 다섯 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패전투수가 됐던 송은범은 “과도한 생각은 독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 생각 없이 공을 던져야 하는데 그것을 깜박깜박한다. 모자에 써야겠다. 포수에게 타자 승부를 맡기고 (단순하게) 내 공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